

제3주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및 신도청 건설에 따른 예산군의 지역개발 방안

윤 준 상

(공주대학교 교수)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및 신도청 건설에 따른 예산군의 지역개발 방안

I. 들어가는 글

- 충남도청이 예산군 삼교읍과 홍성군 홍북면에 걸쳐 약 1,000만 평 규모로 2012년까지 이전을 준비하고 있음. 도청이전 예정지역 중 예산군은 삼교읍 목리·이리 전 지역과 신리·수촌리 일부지역에 걸쳐 약 300만평을 차지함.
- 도청이전이 지역발전의 전기가 되기 위해서는 도청이전이 지역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보다는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여 앞으로 닥치게 될 변화를 가늠해 보고 지역이 주체적으로 이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절실함.
- 또한 2008년 개통될 예정인 당진-대전고속도로는 현재 예산군에서 대전광역시까지 1시간 30분의 소요시간이 3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당진-대전간 고속도로는 예산군의 서북부와 동남부를 축으로 중심부를 관통하여 관내에 신양, 예산, 고덕 등 3개의 IC와 1개의 휴게소를 건설하게 되어 고속도로 접근 소요시간이 1시간 내의 편리성을 제공하게 될 것임.
- 충남도청이전과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장항선철도 확장 등으로 예산군의 지역공간 및 환경이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예산군을 포함한 충남내륙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지역경제기반의 취약성, 개발격차의 심화, 공간적 통합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신도청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

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깨끗하고 다양한 자연자원, 풍부한 전통문화 유산, 첨단농업바이오생산기지로서의 개발잠재력을 극대화한다면 충남의 중심지로서 부상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예산·홍성이 신도청이전지로서 확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권과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도시축을 서해안 및 충남 내륙중심지역에 구축함으로써 충남의 행정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지역개발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II. 충남도청이전의 개요 및 파급효과

1. 충남도청 이전의 의미

- 그동안 천안~대전간 경부축과 서북부지역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져 서해안 및 충남내륙지역의 공동화를 유발되었음.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대전·청주·천안이 광역도시권화되는 경우, 행정도시권은 수도권 확장의 억제효과 뿐만 아니라 충남 내륙지역의 흡입효과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예산·홍성이 도청이전 예정지역 확정을 계기로 행정중심 복합도시권과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도시축을 서해안 및 충남 내륙중심지역에 구축함으로써 충남의 균형발전의 거점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발전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로부터 약 70km에 입지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충남도청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2. 충남도청의 개발 개요

1) 충남도청이전관련 계획

- 도청이전계획의 개요
 - 목표연도 2030년이며, 계획인구 120,000인
 - 인구밀도를 100인/ha~150인/ha로 계획시 10km²~15km²로 추정
 - 관리면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남악신도시와 같이 개발면적의 3배 적용시 30km²~45km²가 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동일하게 개발지를 중심으로 반경 4km를 관리면적으로 계획할 때에는 23 km²로 예상됨
 - 충남도청 이전시 총면적 9,876천m²중 홍성군 행정구역에 속한 홍북면 일원의 면적 6,260천m²를 도청 및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 수요로 산정
- 신도청 건설에 따른 제조업 위치 및 개발여건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정비
 -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재정비, 산업용지 공급계획 등
 - 예정된 산업단지 면적은 66만 3000m² 이지만 도시의 자족기능을 위해 추가확보가 필요하여, 기존면적 외 주변지역에 240만 m²의 산업용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
- 충남도는 도청 신도시의 인구유입을 위해 예산·홍성군을 교육특구로 지정할 계획
 - 교육도시 건설은 인구유입에 있어 가장 매력적인 요인임
 - 교육특구지정을 통해 지역군수의 공립학교 설립이 가능하며, 교원인사권과 학교시설 기준과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됨

- 현재 재경부와 협의중이며, 교육청과 예산·홍성군이 공동참여하는 방안이 강구됨
- 종합병원 유치 추진
 - 도청신도시내의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의 유치가 필요함
 - 현재 건양대가 병원설립의 의지를 보여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임.

3. 충남도청 이전의 파급효과

- 도청이전에 따른 지역내 파급효과를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써 각 연구기관이나 보고서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최초 입지선정 연구시 검토되었던 일반적인 기대효과, 인구유발 효과, 고용창출 효과로 나누어 분석함.

1) 일반적인 기대효과

- 도청이 이전됨에 따라 기대되는 일반적인 효과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표 1>와 같다.

<표 1> 도청이전사업의 일반적 기대효과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의 전환점으로 활용 ●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 ● 중앙의 관심과 투자확대 유발 ● 도민의 자긍심 고취 ● 행정효율 및 주민관리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 초래 ● 도시건설의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 ● 입지선정 탈락지역의 주민반발과 지역갈등의 심화

2)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추정인구

- 도청과 유관기관 등의 이전이 대전·충남지역에 초래할 인구유발(분산)효과는 약 12만 8천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새로운 인구유입을 초래하기보다는 대전시에 소재한 현 도청과 유관기관의 이전에 따른 직원, 부양가족 및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이주로 대전·충남지역의 인구를 재배치 또는 분산하는 효과라 판단됨

<표 2>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추정인구

구 분	유발인구(명)	추정방법
도청이전신도시 근무인력 이동	48,467	• 이전기관의 근무이전과 이에 따라 이주가 예상되는 인원, 그리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발생하는 간접유발 인구를 고려하여 추정
산업단지 건설 및 교육 연관	49,411	• 자족성 연구의 고용인원 및 가구당 인구 예측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
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역 주민이동	16,000	• 행정도시 예정지역 기존주민들의 외부이주 고려
타도시와 경쟁에서 광역권으로 이동	15,000	• 이주비율 및 실현율을 시·군별 인구이동패턴을 보면 순이동인구 평균치로 적용하여 추정
소 계	128,878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중간보고서, 2007.7.

- 도청이전과 함께 신도시로 이주할 대상 기관이나 단체는 당초에는 220여개소로 예상되었으나 충청권 3개 시 도를 모두 관할하는 44개를 제외한 현재 176개소로 예상되며, 이중 공공기관 35개소, 유관기관 141개소가 유치목표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충남도청 신도시 유치기관 조성

	당초	변경	감소
계	220개	176개	44개
공공기관	45개	35개	10개
유관기관	175개	141개	34개

자료 : 충남도정신문, 도청이전 동반자 유치목표 현실화, 2007년 8월 5일

- 유치 대상에서 제외한 기관은 대전지방국세청 등 국가기관 10개,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 등 유관기관 34개로서, 이들 기관은 도청 이전사업 초기부터 이전 대상에 넣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도청을 옮긴 후에 후 유치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 충남도는 2006년 3월에 나온 ‘도청 이전후보지 선정과 향후 계획’ 용역보고서(충남발전연구원)를 토대로 대전에 있는 도단위 유관기관 220개를 유치 대상으로 정했고 이 중 91개 기관이 이전할 뜻을 밝혔다.

<유치대상 제외기관>

- ▲ 국가기관(10) - 대전국세청, 대전보훈청, 대전국토관리청, 대전교정청, 대전노동청, 충남노동위, 대전세관, 충청체신청, 공정거래위 대전사무소,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 ▲ 유관기관(33) - KT충남본부, KOTRA대전무역전시관, 한국전력공사 충남본부,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사, 대전상공회의소, 農協중앙회 대전충청본부,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등
- ▲ 이전확정(1) - 충남발전연구원

3)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투자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 충청남도(충청남도, 「충남도청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2007)에 따르면, 도청이전 신도시의 건설비용은 약 1조 7,500천억원으로 추정
- 건설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고용창출, 소득창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충남지역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 건설투자비가 1조 7,500억원일 때, 생산유발효과 약 3조 4,000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5,000억으로서 신도시 건설투자에 따른 직간접 유발인구는 총 6만 8,788명으로 추정됨

<표 4> 도청이전신도시 인구계획

구 분		2015년	2020년	2030년
인구	계	50,000	90,000	12,000
	홍성	25,000	50,000	70,000
	예산	25,000	40,000	50,000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중간보고서, 2007.7.

4)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 도청이전 신도시와 중심상업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신도시 중심생활권 형성
 - 신도시의 사회, 경제적 자족성을 뒷받침하고, 주변지역으로의 고른 발전을 위해 홍성, 예산에 각각 1개의 생활권 배분
 - 남북방향의 개발축(지방도 609호선)에 인접한 중심생활권 A, B를 각 행정구역별 주 생활권으로 설정
 - 산업생활권은 첨단산업용지 중심으로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징을 가지는 생활권으로 설정

<표 5> 생활권 기능배분 및 인구

구 분		기능배분	인구
도청이전신도시		행정업무,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자족적 복합신도시	120,000
소생활권	중심 생활권A	행정업무기능 : 지역행정기능 중심	24,000
		역사문화관광 / 예산권 중심생활권	
	중심 생활권B	행정업무기능 : 광역행정기능 중심	21,000
		중심생활권 / 광역행정기능 / 도청, 도민화합 / 유관기관 입지	
	지역 생활권A	주거기능 : 예산권 주거중심	29,500
	지역 생활권B	주거기능 : 홍성권 주거중심	29,000
		문화,레저 : 용봉산 자연휴양림 및 수련원 시설과 연계, 첨단산업기능	
	산업중심 생활권	첨단산업단지 중심 : 경제적 자족을 위한 생활권	16,500
		첨단도시이미지 형성	
주변지역		홍북면 소재지 : 기존취락정비, 화양역 이전지 주변 역세권 개발 등	30,000
계			150,000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중간보고서, 2007.7.

4. 충남도청이전에 대비한 예산군의 계획

-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2030년 목표인구 12만인 중 단계별 계획에
의거 2020년 계획인구를 10만인으로 설정하여, 2020년 충남도청
이전신도시내 예산군의 인구는 4만인으로 계획

-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건설과 관련 SOC시설 확충구상을 반영하여 해미공항(해미군비행장(K-Z기지)에 민항기 취항 추진)~신도청, 아산·천안~신도청, 내포문화권연계도로~신도청, 수도권전철연장 등 도로망 확충계획 검토 중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와 충남도청 이전신도시를 연결하는 남북축연결도로망(고덕IC~도청이전지)을 건설함으로써 접근성 향상
- 충남도청 이전시 총면적 9,876㎡중 예산군 행정구역에 속한 삼교읍 일원의 면적 3,660천㎡를 도청 및 신도시건설에 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 수요로 산정
- 예산군의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에 대한 요구사항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예산IC~도청신도시간 도로개설
 - 도청신도시~덕산도립공원간 직선도로 개설
 - 대학과 산학협력용지를 예산·홍성 경계에 배치
 - 환경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공급 처리시설 이동
 -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 삼교 부도심권을 물류와 첨단산업기지로 조성

III.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

1.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사업의 개요

1) 사업배경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는 전국간선도로망(7×9)의 동서 6축의 일부 구간으로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임
 -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경우 이 노선은 대전과 충청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여 서산, 당진, 아산지역의 대단위 공단과 아산항의 물동량을 중부권으로 직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연결 고속도로 현황
 - 본 노선의 시점부인 신성JCT는 기존의 호남고속도로와 연결
 - 종점부인 남당진 JCT에서 연결되는 서해안고속도로는 총연장 166.2km, 왕복 4~6차로임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4차로)와는 서공주 JCT에서 교차하며
 - 공주~서천간 고속도로(4차로)가 우성 JCT에서 연결될 계획

2) 사업개요

- 이 노선은 기본설계 당시 94.3km이었으나, 실시설계과정에서 노선이 일부 변경되어 연장 91.58km임
 - 시 점 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 종 점 부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사기소리
- 사업규모 : 연장 91.59km. 4차로
- 기본설계 : '93. 6 ~ '94. 5
- 실시설계 : '94. 12 ~ '96. 6

<표 6>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노선개요

구 분	당진 ~ 대전간 고속도로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 91.58km • 차로수 : 4차로
유 출 입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C : 8개소 • JCT : 3개소
교량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m 이상 : 36개소 • 100m 미만 : 74개소
터널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m 이상 : 13개소

자료 : 국토연구원, 당진-대전 및 구미-옥포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연구, 1999

2. 당진-대전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기대효과

1)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파급효과

- 도로의 일부 또는 전구간의 개선은 도로망 전체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간의 통행비용을 줄이고, 두 지역간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높여, 결과적으로 토지이용, 인구 및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신규도로 개발은 도농간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정주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옴

- 지역주민들의 정주형태 측면에서 보면 한 단계 위의 도시로 생활권이 이전
- 중심지의 기능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중심기능이 약화되고 신규 중심지의 기능이 강화
- 접근성의 개선은 새로운 토지수요를 유발시키고 이것은 다시 인구흡입과 통행량의 증대를, 통행량의 증대는 도로의 개선을 유발함(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
- 도시적 토지이용면적이 포화된 도시내부의 도시적 토지이용의 수요는 접근성 개선을 유발하여 그 주변 농촌지역으로 확산되어 농촌지역의 인구유입과 함께 급격한 도시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느 이상의 거리에 있는 농촌지역은 통과지역으로서 도시면적은 증가되나 인구는 감소하는 이중성을 가짐
- 고속도로 개통으로 물류수송시간 단축, 비용 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기회요인을 제공함으로써 산업발달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고 낙후된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예견됨
- 관광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크게 기대됨
- 농수산물도 수송시간 단축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전망이며 고부가가치 농수산업의 발달가능성이 증대
- 신산업지대축의 형성 등을 통한 일자리와 생활문화기반시설을 동시에 확충하지 못할 경우 고속도로 주변지역은 인구유출로 심각한 지역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지역의 중심산업이 농업인 지역은 쇠퇴가 진행될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소비·구매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비스산업도 쇠퇴할 가능성이 높음
- 인구 3만 미만의 읍급 도시들은 더욱 소읍화할 가능성이 높고 중심성, 특화가능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음

- 고속도로의 개통은 사람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에서 양향을 미쳐서 능률성, 상업성, 개인주의, 교환성이 강조되면서 농촌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지역공동체를 변질시키는 촉진제로 작용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도 구비해야 할 것

<표 7> 도로확충 등 개발사업의 긍정적 파급효과>

구 분	도로확충	관광단지	공업단지
• 1차적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거리 단축, 주행비절감, 혼잡도 완화, 행동권역 확대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쾌적성, 편리성제공 • 지역산업 활성화 • 생활기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증가, 체제·숙박객 증가, 소비단가의 증대를 통하여 관광산업활 성화, 고용기회 창출 및 인구 유입 효과, 재정증대효과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수 증가, 단위생산액 및 부가가치 증가를 통하여 제조업 활성화, 고용기회 창출 및 인구유입효과, 재정증대효과 기대
• 부차적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연관효과를 통한 지역산업 성장 기대 • 소득증대의 승수효과 기대 • 유발인구에 의한 경제활성화 및 순환효과 		

자료 : 김대식, 고속도로 개발 전후의 농촌지역 토지이용 및 인구변화 특성, 농촌계획 제 9권 2호, 2003.
 김원배,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 대전·충남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국제무역연구 제 18권 1호, 2002.
 원광희,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간 접근성 변화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보 제 16집 1호, 2003

<표 8> 고속도로확충에 따른 주변지역의 부정적 파급효과>

역기능	비고
• 수도권 지역으로의 예측 가능성	- 지역간 통행시간 단축에 따른 비수도권지역의 자생력 상실
• 지역상권의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본과 인구의 역외유출 예상 - 이에 대한 영향분석 등 실질적인 지역개발전략 수립필요
• 생태계와 역사문화자원의 파괴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소규모의 공업단지의 개발을 통한 자연환경 파괴 - 환경영향총량평가제 도입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필요 - 역사문화자원의 훼손 우려가 크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정체성 상실우려가 증대

자료 : 이재길, 2001.3. 지역발전 극대화전략, 보령시 지역발전 극대화전략 보고대회.
 전경구, 고속도로가 낙후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9권 2호, 1999.

2)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산업입지 여건의 변화

- 당진~대전고속도로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그동안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았던 충청권의 동서지역을 관통하여 '서울-대전'이라는 대도시와 서해안고속도로, 대진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의 국토의 전체지역을 연결하게 하는 도로이고, 수려한 산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로인 만큼, 물류 수송 및 인적 이동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물류·관광·휴양 등 많은 산업에서 그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여건이 변화·개선되었음
- 이에 따라, 대상지역을 활용코자 하는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관광·휴가·여가 활동이나 업무상의 통과나 방문객, 그리고 물류의 이동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97년 교통량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경우 당초 교통량보다 약간 감소

<표 9>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교통량 예측결과

노 선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당진 ~ 대전	기예측지	본연구 예측지	기예측지	본연구 예측지	기예측지	본연구 예측지	기예측지	본연구 예측지
	32,286	31,223	37,604	36,659	44,152	42,340	49,350	47,172

자료 : 국토연구원, 당진-대전 및 구미-옥포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연구, 1999

<표 10>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구조물 사업물량

구 분		단 위	물 량	비 고
교 량	장 대 교 (100m이상)	개소/m	36/12,543	IC 제외
	소 교 량 (100m 미만)	개소/m	74/2,845	IC 제외
터 널		개소/m	13/6,093	-
출입시설		• IC : 8개소 (노은, 장기, 북공주, 유구, 신양, 예산, 고덕, 면천) • JCT : 3개소 (신성, 서공주, 남당진)		

자료 : 국토연구원, 당진-대전 및 구미-옥포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연구, 1999

3. 당진-대전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의 과제

- 당진-대전 고속도로 개통의 영향을 모형 및 지표개발에 의해 확인 평가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핵심분야에 대한 변화 추이나 평가를 통해 국토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전략, 지역개발대책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
- 앞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고속도로 건설개통의 총생산유발효과와 소득제고 효과의 추정을 통한 지역의 변화과제에 대응방안이 필요함
- 고속도로 개통으로 부분적인 통과지역, 인구유출 가능성 지역, 지역경제 침체지역에 대한 별도 대책수립이 필요
 - 거점유인시설 및 자원개발이 부진할 경우, 고속도로 주변지역은 충청권의 동서지역을 연계하는 통과지역으로 전략할 우려가 크고, 수도권과 주변의 대도시 지역경제와 인구 유출 문제가 발생 가능성
 - 고속도로 주변지역은 생활권 자체가 자족성이 매우 취약하므로 공공시설 공급계획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 이는 정주체계의 분석 및 미래 도시체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확인이 가능
 - 특히 예산군은 확실한 중장기계획 없이 발전되어 향후 발전축 설정이 어려운 실정이고, 중심기능이 미약한 농촌 중심지임
 - 중심산업이 농업인 관계로 쇠퇴가 진행될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소비·구매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비스 산업도 쇠퇴할 가능성이 높음
- 결론적으로 당진-대전고속도로 개통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투자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과 형평성 차원의 합리적인 안배가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되도록 유도
- 다양한 영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향후 계획수립, 평가, 계획의 수정에 반영토록 유도하여 연계시스템을 구축

IV. 예산군의 위상과 잠재력분석

1. 예산군의 위상

1) 인구현황

- 예산군의 인구는 약 9만 1천명으로 전국 군 단위 지역 중 상위 7위. 충청남도 상위 2위임
- 전국 군지역의 인구를 비교해보면, 울주군이 180,467명으로 인구가 가장 크고, 예산군이 9만 명으로 상위 7순위
- 예산군은 당진군과 함께, 충남지역 내에서 인구가 가장 큰 지역으로 충남 인구의 10.9% 임

<표 11> 전국 군 지역 인구 순위(2006년)

지역	인구	순위
울주군	180,467	1
달성군	160,693	2
청원군	138,707	3
당진군	127,167	4
칠곡군	114,612	5
여주군	106,270	6
예산군	91,452	7

* 출처: 통계청, 2006.

- 예산군의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천안(55%), 아산(31.3%), 서산(6.3%) 등의 예산군 주변 대도시의 인구는 증가세
 - 반면, 천안, 아산, 서산, 연기를 제외한 충남의 나머지 시·군 인구는 감소
 - 예산군의 인구 증가율은 -16.9%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인구가 줄고 있음

<표 12> 전국 군 지역 인구 순위(2006년)

구분		인구	인구감소율 (‘95~‘05)	인구구성비 (%)	세대당 인구수(명)	인구밀도 (명/km ²)	고령화율 (%)
충청 남도	충청남도	1,982,498	6.85	-	2.6	230.5	13.2
	천안시	518,818	54.96	26.2	2.7	815.4	6.7
	아산시	208,448	31.32	10.5	2.4	384.4	10.6
	서산시	151,283	6.29	7.6	2.7	204.6	12.5
	논산시	135,210	-9.97	6.8	2.6	243.7	16.0
	공주시	130,595	-5.50	6.6	2.7	138.8	15.2
	당진군	122,016	-0.14	6.2	2.7	183.7	15.3
	보령시	108,639	-11.69	5.5	2.6	191.1	15.1
	예산군	91,452	-16.90	4.6	2.6	168.4	18.5
	홍성군	91,432	-9.96	4.6	2.6	206.0	23.0
	연기군	85,395	5.52	4.3	2.6	236.3	14.2
	부여군	81,850	-21.00	4.1	2.6	131.0	20.8
	태안군	64,075	-11.26	3.2	2.6	126.9	17.1
	서천군	64,676	-24.13	3.3	2.5	180.8	21.9
	금산군	59,014	-16.76	3.0	2.5	102.5	19.4
	청양군	35,144	-23.16	1.8	2.5	73.3	24.1

* 출처 : 통계청, 2006

- 예산을 포함한 충남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
 - 예산군의 고령화율은 18.6%로 고령화현상에 따른 사회문제가 발생
 - 충남의 시·군별 중에서 예산의 고령화율은 6위로 높은 편임

- 충남의 인구 이동율은 0.3%로 인구유입이 일어나고 있음
- 예산군은 전입에 비해 전출이 많아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음

<표 13> 예산군 및 주변지역 인구 이동율(2005년)

(단위 : 명)

구분		전입	전출	순이동	이동율
충청남도	충청남도	325,444	320,445	4,999	0.3
	천안시	113,736	108,254	5,482	1.1
	아산시	43,098	40,714	2,384	1.1
	서산시	22,417	22,777	-360	-0.2
	논산시	18,498	19,729	-1,231	-0.9
	공주시	18,455	19,054	-599	-0.5
	당진군	18,743	15,989	2,754	2.3
	보령시	14,287	15,059	-772	-0.7
	예산군	9,237	10,062	-825	-0.9
	홍성군	11,453	11,660	-207	-0.2
	연기군	12,401	12,719	-318	-0.4
	부여군	7,641	9,090	-1,483	-1.8
	태안군	7,092	6,886	206	0.3
	서천군	5,663	6,736	-1,073	-1.7
	금산군	6,505	8,022	-1,517	-2.6
	청양군	3,131	3,608	-477	-1.4

2) 재정현황

- 예산군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56,264백만원, 지방세 20,805백만원, 세외수입 59,128백만원으로 비교적 작은 재정 운영
- 일반회계의 경우, 충남 군 예산 평균 256,464백만원에 근접한 수준
- 충남 군 단위 지역 중 당진군 다음으로 높은 수준

- 재정자립도는 13.6%로 주변 지역과 비슷한 수준
 - 주변 군 단위 지역 평균 15.6%보다 낮은 수치로 비교적 낮은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음

<표 14> 재정 현황비교(2005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일반회계 총예산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자립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2,484,542	744,118	414,608	29.0
	천안시	710,749	199,113	215,792	48.9
	아산시	512,455	113,343	190,845	39.9
	서산시	415,166	77,787	128,227	23.0
	논산시	274,673	29,292	94,125	14.7
	공주시	328,151	31,109	89,535	19.2
	당진군	353,113	49,195	59,094	32.5
	보령시	393,468	27,233	141,945	20.5
	예산군	252,523	20,805	59,128	13.6
	홍성군	278,734	20,080	67,713	11.5
	연기군	221,197	24,518	65,400	21.2
	부여군	286,836	18,335	71,391	12.4
	태안군	295,489	18,358	135,850	25.5
	서천군	236,368	16,240	61,593	10.1
	금산군	176,947	15,082	98,101	18.6
	청양군	203,231	7,476	67,962	11.6

3) 산업현황

-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높고, 2차 산업은 취약
 - 1차 산업(49%) > 3차 산업(39%) > 2차 산업(12%)
 - 3차 산업 중 도소매업(21%), 숙박 및 음식점업(13%)이 큰 비중을 차지
-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전체 종사자수의 49%인데 반해 1차 산업 부가가치 비율은 20%임
 - 3차 산업(62%) > 1차 산업(20%) > 2차 산업(18%)

2. 예산군의 SWOT분석

<표 15> 예산군의 SWOT 분석결과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자연 환경과 지역이미지 - 비옥하고 넓은 토지자원과 낮은지가 - 넓은 호당 농업경지면적 -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보유 - 수도권, 대전권, 한강해권에 인접 - 역사적으로 물, 산이 풍부하고 자부심이 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노령화 심화 - 농업위주의 산업구조 - 경쟁력 있는 산업시설의 부재 - 관광상품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 미흡 - 예산읍 1극 중심의 공간구조 - 도시계획 정비 미흡으로 기반시설 취약 - 교육 및 문화여건 열악 - 각종 개발규제(농업진흥지역, 토지 거래허가제)
기 회	위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북부의 산업축과 연계 - 도청이전에 따른 개발효과의 파급 - 도청 유관기관의 이전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 - 도로망 확충(당진~대전, 평택~홍성 고속도로) - 철도망 확충(장항선 개량, 서해안 철도 신설, 수도권 전철연결 등) - 3Es(Entertainment, Excitement, Education)을 결합한 주제별 관광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화시대 도래에 따른 인접지역과 경쟁 - FTA에 따른 농업환경변화와 새로운 시도부족 - 공장이전에 따른 난개발과 지역정체성의 파괴 -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인구유출 -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불합리적 의사결정 - 변화와 혁신의 경험부족과 두려움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중간보고서, 2007.7. 참조

V. 예산군의 지역개발전략

1. 대응방향

- 예산군의 지역발전에 대한 제 요소를 기준으로 SWOT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의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고 약점의 보완과 위협의 최소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전략수립을 위한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I 사분면 : 기회요소를 이용한 강점의 극대화 ▣ 제 II 사분면 : 기회요소를 이용한 약점의 보완 ▣ 제 III 사분면 : 위협요소에 대비한 약점의 보완 ▣ 제 IV 사분면 : 위협요소의 최소화로 강점의 유지 |
|--------------------------------------------------------------------------------------------------------------------------------------------------------------------------------------------------------|

<div>II</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권 배후지 기능의 강화 • 첨단/환경 농수산업의 육성 • 문화역사와 관련 기관유치 • 국제수준의 관광인프라구축 	<div>I</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의 보존과 활용 • 문화/관광 중심지기능 강화 • 지역중심성 제고 • 광역교통망의 확충
<div>III</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균형개발노력 촉구 • 인접지역과의 공동사업 추진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방식 도입 • 세계화에 적합한 주민의식 고취 	<div>IV</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상품의 시장성 강화 • 환경친화적 관광자원의 개발 •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 균형발전의 중개자 위상정립

[그림 1] 예산군 SWOT분석에 따른 대응방향

2. 예산군 발전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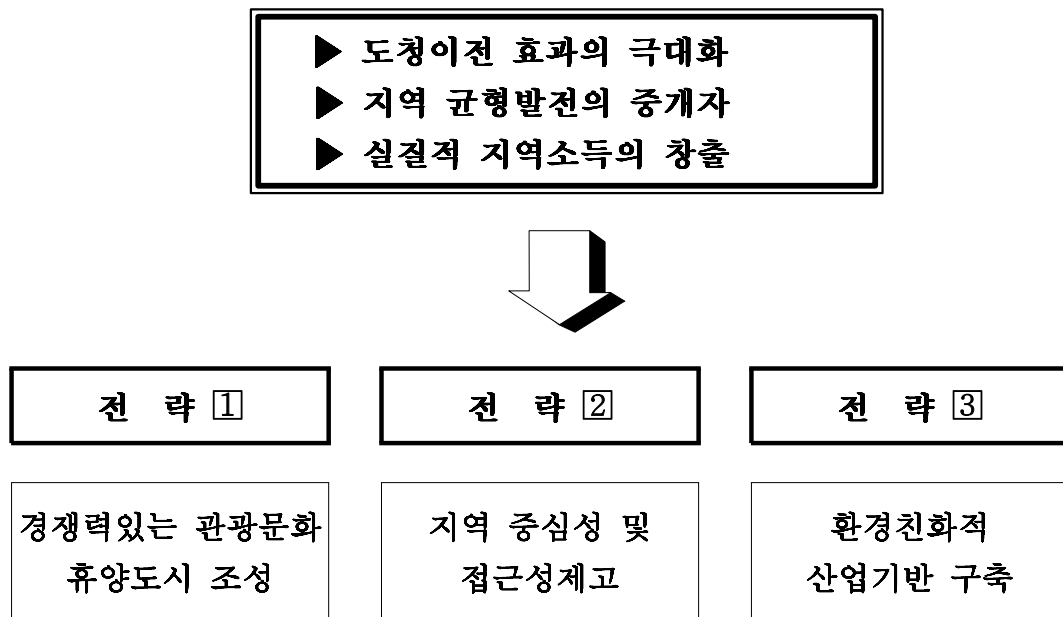
- 예산군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토대로 21세기 신도청시대에 적합한 예산군 발전의 기본 방향은 앞서 SWOT분석을 통해 검토한 바와 같이 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변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지금까지 도청이전사업과 당진-대전고속도로개통에 따른 파급효과와 주변여건의 변화 등의 결과를 분석한 바를 종합해 보면, 신도청시대의 예산군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은 1)도청이전사업의 추진, 2) 지역불균형의 심화, 3) 지역특화산업의 개발로 정리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산군 발전의 기본방향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청이전 효과의 극대화, 지역균형발전의 중개자, 실질적 지역소득의 창출이라는 3가지 측면으로 정립해야 할 것임.
 - 도청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대도시의 배후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 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 위상의 제고와 인구 유입을 꾀하고, 개방적인 주민의식을 고취하는 전략이 필요
 - 지역 균형발전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당진-대전고속도로 개통을 통해 서북부권 교통의 요충지 기능과 동서부의 개발 파급효과를 전 지역에 확산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강구해야 할 것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역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첨단/환경 산업 및 농업 육성과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 친환경적 첨단 제조업 유치와 육성이 필요함

<표 16> 예산군 발전 기본방향과 SWOT분석결과의 관계

도청이전효과의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청소재지와 주변 광역권의 배후지 기능 강화 • 중앙, 도청 유관기관 이전시 예산군에 적정기관 검토와 유치 • 세계화와 개방화에 적합한 주민의식 고취
지역균형발전의 중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교통망의 확충을 통한 서북부권 교통요충지 기능 • 동서를 연결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중개자 위상 정립 • 중앙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방침 적극 수용 및 건의 • 인접 지역과 개발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문화·복지·환경 구축
실질적 지역소득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의 첨단/환경 산업 및 농업육성 •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상품의 시장성 강화 •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방식 도입 • 친환경적 첨단 제조업 유치와 육성

3. 예산군 발전전략의 도출

- 이상에서 살펴본 예산군 발전의 기본 방향과 SWOT분석 결과와의 관계를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도청이전효과를 극대화하고 광역권 배후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관광문화·휴양도시를 조성」 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의 정비 등과 함께 「지역중심성 및 접근성을 제고」 해야 하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실질적 소득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의 구축」 이라는 21세기 신도청시대를 준비하는 3가지 발전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음



[그림 2] 예산군 발전전략의 도출

4. 예산군의 지역개발전략 및 과제

1) 지역중심성 및 접근성 제고

- 당진~대전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예산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의 시범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군만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거점도시와 농촌중심지를 중심으로 인접도시와 보완 및 협력하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
- 농촌지역의 부존자원, 여건변화, 신성장동력산업 등을 고려하여 기능별 거점도시를 선정하고 특화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간 상호작용 및 지식교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창출
- 권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을 통한 정주체계 개선
 - 관광·휴양권(덕산, 봉산면지역) : 덕산도립공원과 덕산온천, 그리고 주변의 많은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개발

- 기반산업권(고덕, 삼교, 신암, 오가지역) :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신기술을 보급하여 농·특산업의 중심지로 개발
- 정주시설권(신양, 대술, 예산읍지역) : 행정, 주거와 병행하여 첨단산업시설단지화 조성
- 호반권(웅봉, 광시, 대흥지역) : 예당호와 봉수산 자연휴양림 등을 연계하여 수변문화 중심지로 개발
-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함
 - 농산물, 자연 및 문화자원, 산업단지 및 특화산업 등 지역부존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발전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원시설과 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함
 - 지역주체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부존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함
- 당진-대전 고속도로는 충남지역을 완전히 동서로 횡단하여 대전권과 서해안권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서 서해안 개발내지는 환황해권 시대의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임.
 -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새로운 관광벨트와 산업벨트, 그리고 물류 중심이 형성되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므로 예산군의 지역경제의 주체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당진-대전고속도로 개통으로 잠재력은 증가했으나 지역간 연계 교통망체계가 아직 미비하여 중소 생활권내 자족성, 통합성이 미약하며, 중소 생활권간에도 연계가 미흡하고 공간통합성이 미약하여 win-win차원의 보완·상생관계를 통해 상생적 발전을 유도해야 할 것임
 - 고속도로와 계획된 연계도로를 차질없이 완공토록하고 지역간 교통망 정비추진이 필요함
 - 첨단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종합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

- IC 연접부에 첨단산업·정보관련시설·연구개발시설·물류센터 등을 포함하는 복합단지개발
- 특히 삼교읍 일원에 신도청이전지와 연계하고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대규모 물류단지나 유통센터설립이 필요함

2) 경쟁력 있는 관광문화 휴양도시 조성

- 충남도청이전을 계기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도청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 함.
 - 행정기능 외 산업과 주거, 문화와 복지 등 삶의 전 부문에 있어서 충남을 대표하는 중심거점으로 조성함.
- 도시의 편의성과 농촌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을 지향하는 경쟁력 있는 관광문화 휴양도시로 조성함.
 - 농업과 특화산업, 정주체계가 어우러지는 선진형 전원휴양도시 모델 구축
 - 서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 관광시장 유치전략 수립
 - 수덕사, 덕산온천, 예당저수지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명소 조성
- 농촌 중심지의 고용기회 및 중심기능의 확충과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제고함
 - 농촌 중심지의 생산기능 확충 및 취업기회의 창출을 통해 젊은 층의 유출을 억제함으로써 지역의 활력화를 제고하고, 생산과 주거가 통합된 생활기반을 조성함
 - 농촌지역내 서비스수요의 충족을 위해 쇼핑·의료·교육 등 중심도시의 중심기능을 확충하되, 특히 문화·여가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생활·문화시설 및 서비스기능을 확충하여 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이도록 함

- 농촌 중심지와 주변지역, 중심지간 교통·정보통신 연계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접근성을 제고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를 제공함
- 선진형 문화·교육·복지 기반 구축
 - 지역의 복지수요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도입
 - 교육특구 조성을 통한 명문학교 유치·조성 등을 통한 인구유입유도와 지역 내 인구유출 억제
 - 평생학습도시건설 및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매력 있는 시민사회 구축

3)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구축

- 친환경적 첨단 제조업을 유치·육성하여 예산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농업의 구조전환과 고부가가치화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간 융복합화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함.
 - 천안, 당진, 아산 지역으로부터의 기업유치와 수도권의 기업 및 공장이전을 유도
 - 장기적인 계획적 수용을 통한 지역의 환경파괴와 난개발 방지 대책을 강구
 - 제조업, 서비스업, 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를 제고
- 예산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있어 제조업체의 확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재는 장항선 철도를 따라 천안, 아산으로부터 예산으로의 확산이 진행 중
 - 장항선 철도를 따라 아산→예산→서천으로의 제조업의 확산이 예상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제조업 유입 가능성이 커짐

- 현재 당진군에 집중되어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사업체 유입 효과가 점차 예산으로 확대될 전망
- 또한 대전광역권의 기업체 유입효과도 커질 것으로 전망
- 농촌의 특성을 살리는 관광, 농업, 신산업을 육성하여 활기차고 친환경적인 농촌을 만들
 -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 또는 추진할 경우 친환경적 도시개발기법을 강력하게 적용함
 - 농촌의 자연경관 및 환경자원을 기반으로 도시민의 현장체험, 자연관찰, 휴양·여가선용 등을 유도함으로써 도·농간 교류를 활성화시킴
- 산업클러스터에 의한 지역산업 브랜드화
 - 지역산업의 재생을 위해 예산군에 적합한 산업(예: 사과, 동물약품 등)을 개발하여 기업체, 행정, 대학, NGO 등이 연계하여 인적, 정보 등의 교류를 통한 경쟁력 향상 도모
 - 국립대학인 공주대와의 TLO(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를 활용한 산학연대에 의한 지역산업만들기 추진
 - 지역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시행중인 특징있는 연구성과와 기술 개발결과를 지역산업과 접목.
- 지역순환형 경제창출운동 전개
 - 지자체와 지역NGO의 지역순환형 경제창출운동 전개를 통해 지역내 기업에 발생할 수있는 것은 가능한 지역내에 발주하고 지역내에서 경제가 순환하는 시스템 구축
 - 음식점의 식료품구입은 지역농가로부터 취하는 예
 - 지역내에 돈이 순환하게 하여 지역 속에서 사람이 활동하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게 함.

Ⅵ. 예산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

1. 지역공동화의 의의와 원인

1) 중심시가지의 공동화현상

- 지금까지 도시발달과정에 있어 도시 중심부는 관청이 소재하던 중심지에서 상업지로서의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
- 이제 직장이 주 무대가 된 중심시가지에서 IT산업발전에 따른 사업장의 축소 및 직무인력의 집합소로서 더 이상 그 존재의 의의가 사라지고 있음
- 특히 중소도시의 지가상승을 주도한 중심시가지는 관청과 상업시설이 떠나가 주간만이 아니라 야간에도 사람이 살지 않고 빈 건물만 남겨진 황폐한 공간이 되고 있음
- 현재 예산군의 중심시가지는 이러한 현상들에 의해 빈 점포와 인구유출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예산군의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대한 대안마련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도청 이전과 당진-대전 고속도로의 개통을 통해 예산군의 인구는 인근지역으로 더욱 유출될 것이 예상됨

2) 공동화의 원인

- 중심시가지로부터의 거주기능, 업무기능, 공공시설 등의 유출
 - 거주자 기능의 교외화와 자동차이동이 가능해 집에 따라 유출
 - 비싼 임대료, 주차장 부족, 교통정체 등 접근편리성의 악화로 외곽 이전

- 자동차에 따른 중심시가지로의 접근편리성 저하
 - 주차장부족, 도로사정 악화로 인한 정체
 - 소비자 행동공간의 확대를 위해 먼 곳까지 이동 가능
- 상점가의 노력부족
 - 독신세대의 증가 야행성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젊은 층의 증가 패턴에 대응하지 못함.
 - 매력 있는 점포로의 투자정지, 빠른 폐점시간, 빈점포의 방치 등 상점가의 집객노력의 부족
- 신진대사의 부족
 -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산 가치로서의 평가가 높게 되어 이용가치와 맞지 않음.
 - 토지임대의 기피로 신규참여자의 진입이 억제 됨.
- 중심시가지에 대한 관심저하
 - 중심시가 자체로서의 매력의 상실
- 공동화의 배경원인에는 자동화와 이용가치에 있어 중심시가지의 지가는 너무 높음
 - 중심시가지를 공동화해서 새롭게 재생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교외 대형쇼핑센터의 신설금지나 혹은 이와 관련한 대처방안을 강구

3) 중심시가지 활성화방안

- 우선 특색 있는 사업주체로서 지역의 역량 있는 NGO, NPO의 역할이 중요
 - 타운매니지먼트(TMO)의 실행을 통해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의 추진과 사업수익을 스스로 발생시키도록 함.

- 상업자와 주민, 상공회의소, 행정과 함께 연계하여 사업추진
- 미국에서는 지역의 외부로부터 인재를 등용하여 맡기는 사례가 많음. 일본도 전담 요원을 고용하여 이들을 마을만들기 전문가로 양성함.
- 거리의 안정대책과 미화대책, 이벤트개최, 이미지의 향상, 빈점포대책, 주차장관리 등을 추구하여 지구의 활성화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함.
- 상점가의 매력증진 업종의 적정배치, 신업종·업체의 유치를 통해 상점가의 매력을 높임.
- 기존 인프라(빈공간, 빈점포, 노면 등)를 효율·효과적으로 활용
 - 중심시가지로의 교통량 억제를 위해 바이버스를 신설
 - 현존하는 도로 폭을 줄여 통과차량을 다른 도로로 유도
- 시가지 주민들과 방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조치
 - 지역화폐의 활용
 - 주차장과 점포나 이용시설에 대한 이동과 보행을 최소화함
- 지역 밖으로부터 소득을 유인
 - 기존 중심시가지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산업인프라를 활용
 - 역사적 유물과 과거의 전통문화, 산업 그리고 시설 등을 활용

4) '충청남도의 청사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소재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

- 홍문표의원이 발의한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로 인한 원도심의 경제적 공동화를 예방하고 신도의 성장과 함께 원도심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임.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문제
- 지역기업 입찰참여 할당제
- 고용안정화 지역으로 지정
- 대규모 아파트형 공자의 증설허용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외국학교기관이 설립
- 세금감면제도 시행
- 특수목적고 설립 및 교육재정 지원 등

Ⅶ. 결론

- 충남도청이전과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둔 예산군의 지역발전에 자극제가 될 것임.
 - 이러한 지역발전의 외부효과를 활용하는 한편 신도청건설 사업이 성공하도록 적극협력하고 지원해서 신도청 건설사업 기대효과가 완전히 예산군에 나타나는 내부효과를 동원해야 할 것임.
- 고속도로 개통으로 부분적인 통과지역, 인구유출 가능성 지역, 지역경제 침체지역에 대한 별도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준비가 부족하면 예산군은 충청권의 동서지역을 연계하는 통과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고, 수도권과 주변의 대도시 지역경제와 인구 유출 문제가 더욱 확대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되도록 유도
 - 다양한 영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향후 계획수립, 평가, 계획의 수정에 반영토록 유도하여 연계시스템을 구축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대원칙을 지침으로서 산업과 문화, 그리고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예산군을 건설해야 하며, 군민의 소득과 복지가 향상된 도농복합형 지역개발의 전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신도청이전과 당진-대전 고속도로의 개통을 통해 예산군은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미래의 살기 좋은 지역으로 남을 것이나 적절한 지역개발정책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예산군의 공동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주변여건의 변화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실행하여 예산군이 도청이전 예정지역 확정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권과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도시축을 서해안 및 충남 내륙중심지역에 구축함으로써 충남의 균형발전의 거점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발전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임.

< 참 고 문 헌 >

- 국토연구원, 당진-대전 및 구마-옥포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연구, 1999.
- 권오혁·황병천, 소도시 개발의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 김갑성·박진덕, 환황해안 고속도로 건설이 한·중·일 3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지역연구, 제 22권 3호, 2006.
- 김대식, 고속도로 개발 전후의 농촌지역 토지이용 및 인구변화 특성, 농촌계획 제 9권 2호, 2003.
- 김원배,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 대전·충남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국제무역연구 제18권 1호, 2002.
- 김정민, 도청이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목포포럼 주제발표문, 2000.
- 박종철, 전남 신도청도시(남악신도시) 개발방향, 목포대학교 임해지역개발연구 제 19집, 1999.
- 삼성경제연구소,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중간보고서, 2007.7.
- 원광희,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간 접근성 변화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보 제 16집 1호, 2003.
- 이재길, 2001.3. 지역발전 극대화전략, 보령시 지역발전 극대화전략 보고대회.
- 전경구, 고속도로가 낙후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9권 2호, 1999.
- 조성배,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2006.